

작품을 담은 또 다른 작품



미로센터, 예술의 거리 거주작가 작품 아트상품으로 제작
정해영·진시영·조근호·김재현·최재영, 디자인 업체와 협업
스카프·휴대폰 케이스 등... 지난해 제작 5·18 향수도 눈길

화사한 나팔꽃과 종이비행기가 어우러진 정해영 작가의 작품 '유희 자연-희망'은 멋들어진 스카프의 거품이다. 도회적 느낌이 물씬 풍기는 조근호 작가의 '도시의 창' 시리즈는 휴대폰 케이스와 마그네틱으로 제작됐다. 구름과 집 등으로 구성된 3종세트는 상품 케이스와 잘 어울려 마치 액자에 담긴 '작품처럼' 보이는 게 특징이다.

김재현 작가의 스카프는 봄날의 싱그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산뜻한 녹색 화폭에 화사한 꽃들이 배치된 '가을에 앉아'를 모티브로 했다. 개발된 작품은 지난해 미로센터 2층에 자리한, 예술가와 디자인 업체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아트상품을 공유하는 공간 '아트박스 쇼룸'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사업은 작가들의 문화활동을 촉진하고, 광주를 대표하는 아트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됐다. 미로센터는 앞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외부 공모를 통해 다른 작가들과 아트상품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에 제작된 아트상품을 비롯해 광주 지역에서 제작된 아트상품, 관광상품 등도 상설 전시할 생각이다.

있던 '향수' 개발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향사이자 컨셉디자이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중인 정희경씨가 개발한 '광주의 향' (The Scent of Gwangju)은 민주(명화), 창조(문화예술), 무등산, 빛(라이팅)을 상징하는 향으로 향수를 제작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5·18 향수는 최루탄, 국화향기 등 당시 이미지를 현대적인 향으로 완성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조근호 작가는 "서울 지역은 디자인업체와 작가들이 다양한 콜라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럴 기회가 없어 아쉬웠는데 이번에 상품도 만족스럽게 나와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며 "앞으로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재현 작가의 '가을에 앉아' (왼쪽)와 정해영 작가의 '유희자연-희망'을 소재로한 스카프와 미로센터가 '큐레이티드 광주'전에서 선보였던 5·18 향수. (사진 위)

광주시 동구 공동 미로센터가 2019 광주동구문화적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이번 기획은 센터측에서 디자인 전문회사를 먼저 정하고 이후 작가가 결합, 함께 협의 과정을 통해 제품을 개발했다.

이번 기획에는 DNA 디자인, 디자인 창작소 사월, (주)유니버설트렌드센터가 함께했다. 참여작가는 정해영·진시영·조근호·김재현·최재영 등 모두 5명으로 휴대폰 케이스를 공동 제작했고, 각 작가의 작품 이미지에 맞는 아트상품 5점을 각각 선보였다.

디자인창작소 사월과 작업한 최재영 작가의 작품 '패스티벌'은 예쁜 용기가 돋보이는 향초(틴케이스 소이캔들)로 제작됐다. 화사한 꽃을 머리에 인 아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인 작품으로 같은 시리즈로 휴대폰 케이스도 제작했다.

(주)유니버설트렌드 센터와 작업한 진시영 작가는 인간이 하나의 빛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영상, 사진, 회화 등 다양한 작품으로 제작중인 대표작 'Flow'로 상품을 제작했다. 검은 바탕에 빛의 파동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담은 파우치다.



조근호 작가의 마그네틱 제품, 최재영 작가의 틴 케이스 소이캔들, 진시영 작가의 파우치와 휴대폰 케이스들.

'어르신 ship 재생 프로젝트'

광주시민인문학, 4월 6일 개강



김상봉 교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공동체적 동물이다"고 정의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의 오도로 인해 관계와 기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오류에 빠져 있다.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는 개인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네 고유문화인 '어른'의 선한 영향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어르신 ship'을 모티브로 한 인문학 강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시민인문학이 주관하는 '공동체를 점검하다-어르신 ship 재생 프로젝트'는 공동체 복원을 위해 출선수범 헌신하는 '어르신 Ship'의 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강좌는 오는 4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전남대 정문 앞 인문학 카페 노블(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에서 개최하며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여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첫 번째 세션 '근대 개인의 탄생과 리더십'은 명혜영 박사가 선각자를 통해 본 슈퍼리더십의 탄생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 세션 '인간, 그 갈등의 심연을 보다'는 서명원 박사가 '예술 정신은 어디에 기인하는가? 종교는 무엇인가?' 등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세 번째 세션 '공동체 문화'에서는 이향준·박주희 박사 등이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서: 유학적 수양론', '어른의 인성, 감성, 그리고 공감' 등을 주제로 강좌를 펼친다. 마지막 세션은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공동체와 어른 문화'(6월12일 금요일)를 주제로 한 특강이 예정돼 있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화 '페인트드 버드' '주디' '모리의 정원' 개봉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수상작, 제76회 베니스영화제 경쟁작 등 이번주 극장가에 개봉하는 신작들이 눈길을 끈다. '페인트드 버드(The Painted Bird)'는 26일 광주극장에서 개봉한다. 혐오와 적대 넘쳐나던 세계 2차대전 시기, 동유럽 유대인 소년의 수난기를 담은 작품이다. 폴란드 출신의 작가 저지 코진스키의 소설을 원작으로 바츨라프 마르호울 감독이 제작, 각본, 연출을 맡았다.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최초 공개 후 "기념비적인 작품"(THE GUARDIAN), "감심장을 가진 씨네필을 위한 영화"(Financial Times) 등의 찬사를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같은 날 개봉하는 '주디'(사진)는 광주극장을 비롯해 CGV, 메가박스 등에서 만날 수 있다.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르네 젤위거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영화로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로 전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주디 갈랜드

의 마지막 런던 콘서트를 그렸다. 주디 갈랜드의 히트곡들과 화려한 무대를 만날 수 있다. '모리의 정원'은 27일 광주극장과 CGV 광주터미널점에서 상영한다. 1974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은 30년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정원을 가꾸며 살아온 화가 모리카즈의 정원에 뜻밖에 손님들이 찾아오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렸다. 영화는 손님들로부터 정원의 평화를 지키려는 주인공의 자연주의 철학을 보여주며 그와 그의 아내 히데코의 삶을 잔잔한 수채화처럼 담았다. 배우 키기키린의 유작으로 2018년 금계백화장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및 최우수 외국인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은재 기자 ejf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벤들리관광호텔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메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KBO LEAGUE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t'way